

# 아주대의료원소식

2004

# 6

통권 제 113호 / 발행일 2004. 6. 1 / 발행인 겸 편집인 김孝哲 / 발행처 아주대의료원 홍보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443-721) 전 화 (031) 219-5114

## · 목 차 ·

- 2 신임 의과대학장 인사말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 특별기고  
故 김현만 교수 1주기 추모  
심포지움을 마치며
- 4 포커스  
아주대 의대, 시신 기증인  
합동 추도 모임 가져
- 5 선인재 칼럼  
구성원 모두의 비전이  
실천되는 의료원이 되길
- 6 돌아보는 의료원 10년(4)  
아주대학교 정서 속의 신생 의과대학
- 8 의학 리포트1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의 유전자적 표지자,  
「DPB1\*0301」 규명
- 9 의학 리포트2  
조기 위암, 배 짜지 않고 복강경으로 제거
- 10 나의 연구 나의 테마  
영리한 바이어스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
- 11 유명인과 질병  
스티비 윈더의 미숙아 망막종과  
마이클 잭슨의 성공
- 12 진료교실  
골다공증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13 잊을 수 없는 환자  
팔순 노모의 사랑
- 14 AMC NEWS
- 19 장기기증은 사랑입니다  
장기기증, 새 생명을 전하는 희망입니다
- 20 Zoom & Zoom  
조재현 교수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
- 22 건강 Q&A  
- 약시  
- 소아 고관절 탈구
- 24 병동 클리닉  
중환자가 많은 만큼 보람도 큼니다
- 26 나의 건강상식은?  
키, 이것이 궁금합니다
- 27 협력병원 탐방 용인서울병원
- 28 의료원발전 후원내역
- 30 전문클리닉 소식
- 31 진료시간표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주대의료원 10주년



AJOVA



아주대학교의료원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지난 5월22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수원의 자랑인 세계적 문화유산 화성을 직접 체험하는 「우리 함께해요! 화성순례」 행사를 가졌으며, 6월1일에는 교직원 및 가족의 단합을 위한 건강 마라톤 대회(10km)를 가졌습니다.

5월31일, 6월1일 양일간은 「아주랑 한마당」 바자회 행사를 갖고, 수익금 전액을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진료비로 기부하였습니다. 영양팀은 혼자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밀반찬을 전하는 「밀반찬 나누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5월29일에는 지역사회 장애우를 초청하여 친선 불링대회를, 6월1일에는 경기도립 팝스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가정의 달을 맞아 5월19일 어머니와 딸이 함께하는 무료 골다공증 검진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5월31일 「여성 요실금의 진단 및 치료(애경백화점)」, 6월2일 「고혈압(서호노인복지회관)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오는 7월1일 「비만(여성회관)」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수원시 노인정 순회 무료진료, 외국인 무료진료, 「꽃들에게 희망을」 봉사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이 10주년을 맞아 벌이는 행사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지난 5월19일자로 신임 문창현(文昌玼) 의과대학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임 문창현 의과대학장의 인사말입니다.



저는 지난 5월19일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에 임명되어 봉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소임을 맡겨주신 총장님 그리고 이를 승인해 주신 대우학원 이사장님과 이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의무부 총장 겸 의료원장님, 동료 교수님들의 두터운 신뢰에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의과대학 설립 16주년, 의료원 설립 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 교직원들은 90년대 의과대학이 이룩한 역동적인 성장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지금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설립되지 불과 수년 만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위상은 국내 상 위권으로 진입하였고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큰 꿈을 안고 우리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한해 문제로 대학발전이 정체되었던 최근 수년간 경쟁관계에 있던 의과대학들과의 비교 우위는 여러 부문에서 약화 또는 소멸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직원들은 냉철한 상황인식과 함께 결연한 의지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저는 최우선 과제로 의사국가고시 성적, 재학생 학업성취도 등 교육 분야에서 표출되고 있는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방법 및 학사관리 체제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예정이며, 2007년도부터 의사국가고시에 포함될 임상실기시험(OSCE)에 대한 준비와 4+4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때마침 대학본부는 Global Asia 기치(旗幟) 하에 향후 12년간, 의료원은 향후 10년간의 비전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전 수립 워크숍에 참여하여 교직원들의 열성적인 활동 모습에서 의료원의 밝은 미래를 보았으며 여러 가지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의과대학의 주요 정책사업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병원장과의 밀접한 업무적 연계 속에서 추진하되 원칙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학장실은 교수님들에게 언제나 개방되어 있고 주요한 업무일수록 교수님들의 뜻을 담는데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전임 학장님들의 지난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제가 맡은 소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임교수님을 비롯한 전체 교직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독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故 김현만 교수 1주기 추모 심포지움을 마치며



「뱃 꽃이 지고 봄이구나」 생각했는데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2003년 4월11일 불의의 갑작스런 사고로 김현만 교수를 잃고 망연자실 했던 것이 벌써 1년이 지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추모식을 가졌다. 당시 많은 분들이 고인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을 지금의 모습으로 일구어 놓으신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대한당뇨병학회 경인지회와 함께 국내외 여러 훌륭한 연구자들을 모시고 2004년 5월5일 1주기 추모식 및 내분비대사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과 관련한 유전자 연구와 인슐린저항성과 관련한 신호전달체계 연구 그리고 골다증 및 골다공증과 관련한 연구분야에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외 8명의 연자를 모시고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는 1부 故 김현만 교수 1주기 추모식과 2,3,4부의 학술심포지움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에는 허갑범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세선화-연세대 의대 내분비내과 출신 의사들의 모임- 회장), 이현철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박성우 대한당뇨병학회 경인지회 회장을 비롯한 교내외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고인에 대한 추모와 유덕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유가족 대표 이철원 교수의 추모사, 연세대 의대 허갑범 명예교수의 격려사를 통하여 식지 않는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표출됐다.

故 김현만 교수님께서서는 1955년 2월6일 부친 김덕흥씨와 모친 백정자씨의 3남 중 첫째로 출생하였으며, 1979년 2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89년 3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연세대학교 원주대의 내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94년 5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주임교수로, 1994년 5월부터 2003년 4월11일 작고 하실 때까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봉직하였다.

故 김현만 교수님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학교실을 창설하시고, 현재의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이 있기까지 헌신의 노력을 다하셨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내분비검사실이 독립되어 환자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임상연구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또한, 내분비학연구실이 있음으로써 기초연구에서도 훌륭한 기반을 갖추는데 헌신의 힘을 다하셨다. 이제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기반이 갖추어져 새롭게 도약을 하려는 순간에 기반만 조성하시고 결실을 맺기도 전에 훌연히 떠나심이 너무도 안타깝다.

이번 학술 심포지움 중 골다증 및 골다공증과 관련한 연구분야에서는 일본 주유부대학 응용생물학부 우제대 교수의 「천연물로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개발」, 연세대 의대 내과 임승길 교수의 「Proteomics in Osteoporosis」, 아주대 의대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정운석 교수의 「Effects of sFRP-3 in osteoblasts」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당뇨병 분야에서는 인하대 의대 남문석 교수의 「Genetic study of type 2 diabetes in Korea」, 싱가포르 국립대학 Daniel P K Ng 교수의 「Genetic susceptibility factors underlying kidney disease in diabetes mellitus」, 미국 하버드대학 이종순 교수의 「Aspirin, a wonder drug : Can it be used for the treatment of diabetes」, 아주대 의대 이관우 교수의 「Role of PKC in IGT and type 2 diabetes patients」, 이화대 의대 김효정 교수의 「Cross-link between inflammation and Insulin resistance」 주제 발표와 심층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끝으로, 지난 5월5일 개최된 「故 김현만 교수 추모 1주년 기념식 및 내분비대사 심포지움 - 당뇨병과 골다공증의 최신 연구 동향」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후학들은 고인의 유덕을 기리고, 유지를 되새기며 故 김현만 교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의 발전을 위하여 정진하고자 한다.

이 관 우 교수 /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 아주대 의대, 시신 기증인 합동 추도 모임 가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은 지난 5월25일 화요일 오후 1시 아주대학교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문창현 의과대학장을 비롯한 교수, 학생,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신 기증인 합동 추도 모임을 가졌다.

이번 추도 모임은 지난 15년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아무런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시신 기증은 의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본인 또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아무런 조건과 어떠한 보수도 없이 시신을 학교에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급속한 현대 의학의 발전이 있기까지 수많은 의학자들이 공헌하여 왔지만, 그 바탕에는 이렇듯 의학발전을 위해 고귀한 시신을 기증하여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의학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의대생들은 누구나 해부학 실습을 통해 「시신」을 처음 대하게 된다. 「우리 몸」을 깊숙이 들여다 본다는 경외심과 함께 시신을 기증하여 주신 분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학발전을 위해 자기 몸을 기꺼이 기증하여 주신

분의 훌륭한 뜻을 받들어 경건한 마음으로 해부학 실습에 임하게 된다. 또한, 시신 기증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여 주신 고인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숭고한 정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봉사」, 「희생」을 실천해야 하는 「의학자」로서의 본분을 일깨우게 된다.

이날 추도사를 하여 주신 문창현 의과대학장은 「고귀한 시신을 의학발전을 위해 기증해 주신 고인들의 명복을 기리고 유가족 분들께 마음 속 깊이 애도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시신을 기증하여 주신 분과 유가족의 훌륭하고 숭고한 뜻에 보답하는 길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남에게 봉사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또한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올바른 의사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과대학생 대표로 추도사를 하여 준 김민호 학생(아주대 의대 3학년)은 「의학발전을 위해 고귀한 시신을 기증하여 주신 소중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 뜻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한마디의 말이나 글로 기증자 분들의 값진 결단에 감사함을 모두 전할 수는 없으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부학교실은 지속적으로 추도 모임을 갖고 시신 기증자들을 위한 위령탑 건립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구성원 모두의 비전이 실천되는 의료원이 되길

**올** 해는 아주대학교병원이 개원하여 환자를 보기 시작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즘은 같이 변해야 산다는 미명하에 우리는 어쩌면 변화되기를 억지로 요구 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아주대학교병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개원 이래로 의약분업이다, 의료보험 통합이다, 포괄 수가제다 해서 의료환경은 지난 10년 사이 실로 강산이 두세 번 바뀌는 것에 버금갈 정도의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개원 초기만해도 응급의학을 책임 맡은 나에게조차 생소한 신생 과인 응급의학과에서 일하게 되면서 나와 응급의학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응급의학과가 겪어 온 많은 변화들은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이었다고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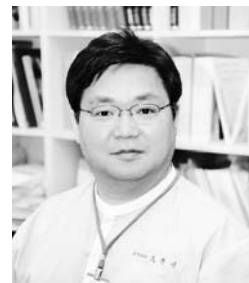
이전 병원에서 내가 속한 외과 20여명의 교원 중 제일 말단(?)인 전임 강사 1년차인 내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로 옮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료, 선배들은 『그래 응의 꼬리가 되니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지』 하시며 격려해 주시던 일이 생각난다. 당시 나는 『아주대학교병원이 응과 같이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고 믿어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뱀과 같이 왜소한 모습으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의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외과와 달리 당시로서는 전문의 제도조차 없었던 응급의학과가 뱀의 모습으로 여겨지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 내가 아주대학교병원과 응급의학과가 응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데 미력하나마 일조를 해야지」 하고 각오를 다짐하던 10년 전의 일이 새롭게 다가온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이제 개원 1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의료원 비전위원회가 구성되어 「함께한 고마운 10년! 함께할 행복한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 비전 설정은 어떤 기관이 성장해 나가는데 그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기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구성원 개개인의 비전, 그가 속한 부서의 비전도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비전과 그가 속한 부서와 기관의 비전이 일치할 때 비로서 한 기관의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의 다양한 비전을 한 기관의 비전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행정 책임자들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정을 맡은 기관장들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구성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만 와라」 하는 식의 구시대적인 리더십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오늘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개개인의 비전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더구나 10년 혹은 20년 후 「그래! 이 기관에서 나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켰지」라는 공감을 갖게 하지 못한다면 이 기관의 발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질문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웅장한 응의 모습으로, 발전적인 변화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아주대학교병원을 꿈꾸며, 아주대학교병원 구성원들 모두가 그들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새롭게 시작되는 의료원 10주년의 첫 발을 활기차게 내딛기를 소망해 본다.



조 준 필 교수 /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 소장

선인(善仁)이란 노자 도덕경에서 인용한 말로 인을 잘 베푼다는 뜻이다. 의과대학 지하 카페테리아에 있는 선인재(善仁齋)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을 논하고 즐기는 장소를 의미한다.



## 아주대학교 정서 속의 신생 의과대학

아주대학교는 공과대학에서 그 역사가 시작된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공과대학 중심으로 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대학교의 문화적 정서이기도 하다. 개교 30주년을 넘겨 이제는 어엿한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공대 중심의 대학 풍토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면 부끄러운 점도 아니기에 일부러 「흔적」을 없애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필자가 1990년 초 아주대학교에 옮겨와서 받은 몇 가지 인상 중 하나는 대학교가 꽤 안정적이며 전반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였다는 점이다. 연세대학교는 사립이지만 그 운영 철학은 국립대학 못지 않게 공립(公立, Public)적 성격이 짙은 기관이었다. 그런 대학에서 15년을 몸담고 있다가 아주대학교로 옮기자니 신분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은 불안하였다. 더욱이 그 무렵 모 대학에서 대학 재단과 교수들 간에 심한 갈등이 생겼고, 그 잡음이 컸던 터라 내심 불안을 느꼈었다. 그런데 초대 학장으로 새 직장인 아주대학교에 온 필자가 보직 교수는 물론 그 외 많은 교수들을 찾아가 인사를 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대학교의 풍토는 화목입니다. 특히 대학 재단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 00대학과는 아주 다릅니다』라고 변명 아닌 설명을 들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듣고서야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불안감이 웬만큼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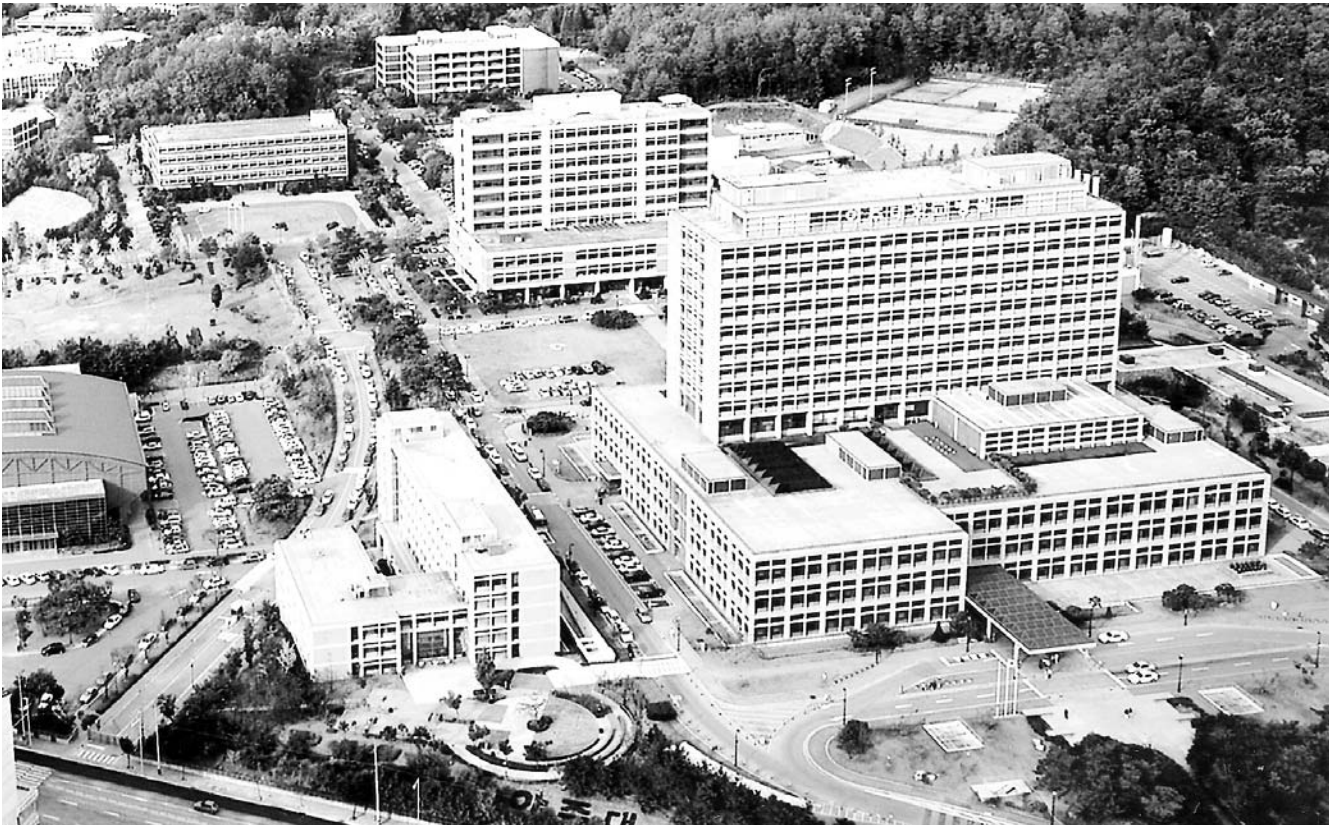
1990년도 2학기에 맞추어 신입 교수 임명 심의 건으로 대학교 중앙 인사위원회가 당시 김철 교무처장 주관으로 소집되었고, 필자는 의과대학장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하였다.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의 규모가 생각보다 방대하여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거의 모든 행정 보직 교수 외 여러 교수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특이했던 점은 자연과학대학의 승진 심사문제를 사회계열대학 교수가 참여하여 「평가」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자연계열 부교수의 교수 승진 건을 들 수 있는데, 당시 그 교수는 연구논문 실적이 4편이 아니고 3편이라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수 분의 3편 논문 중 1편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라는 데 있었다. 모르긴 해도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여러 편보다 훨씬 값진 논문일 텐데 그 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셈이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국내 교수의 인사 심

사기준이 4편이니 더 이상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이 사회계열 교수였다는 점이다. 필자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심한 놀라움과 좌절감을 가졌다. 종합대학인 아주대학교가 단과대학의 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기 때문이다.

그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우리 의과대학의 인사 건이 맨 마지막에 다루어졌다. 심의 대상 교수는 국내 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분이었는데, 그 분을 우리 의대로 모시기 위한 인사 심의가 안건으로 올려진 것이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고, 그 사태의 핵심은 아주대 의대가 연세대학교 출신 일색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어느 사회 분야든 인사 관계에서 불균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일정한 대학 출신으로 교수진이 구성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신생 의대의 처지에서 계속 있게 될 인사문제를 생각하니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먹고 필자의 생각을 피력했다.

『오늘 의대 심의 안건 전에 10여 명의 신입 교수 심의과정을 보니 거의가 동일 대학교 출신이었다. 국내 의료계는 두 개의 의과대학이 쌍기둥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자질 면에서 우열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더군다나 1990년을 전후로 우리 의과대학을 비롯하여 인하대 의대, 건국대 의대, 울산대 의대, 단국대 의대가 신설되었고, 삼성의료원과 우리 대학병원과 서울아산 중앙병원이 1천 개의 병상을 거의 동시에 증축 개원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은 의대 교수진의 수급이 급증하여 어느 대학 출신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 대충 이런 설명을 하고, 의료 시스템의 특성상 임상과별 간 교수들의 긴밀한 협동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선진국의 의과대학에서는 임상 교수를 초빙할 때, 출신보다 그 교수의 연구분야와 유관분야에 누가 있는가를 먼저 챙긴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료분야의 특성상, 이런 상황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부탁하자 분위기는 사뭇 호의적으로 바뀌었고, 다행히 안건은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필자의 마음은 심히 울적했다. 몹시 분개한 데다 마음에 상처까지 입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개개인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 그것도 교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높은 편견의 벽과 낮은 포용력의 수준을 직접 확인한 데 따른 실망감 때문이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필자는 교무처장실 김철 교수를 찾아갔다. 그런데 다행이라고나 할까,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김 교수가 먼저 전날 인사위원회에서 생긴 부담스러운 분위기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마침 자리를 함께 했던 대학장 한 분의 표정도 그러한지라 덕담으로 대화를 끝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필자는 아주대학교의 중앙인사위원회가 단과대학 정서의 테두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임명 절차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런 판단에서 모든 교무위원, 김호규 총장님, 김준엽 재단이사장님을 찾아 뵙고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교수들의 자격 요건 심사 및 평가는 각 단과대학별 인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신입 교원 임명 절차와 관련된 재단의 정관 개정 필요성을 건의드렸다. 모든 분들이 적극 도와준 결과, 다음 학기부터는 인사위원회가 각 단과대학별로 구성되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아직 편향된 정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른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고도 긍정적

인 포용성 등이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다.

필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해」라는 화두(話頭)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신생 의대인 아주대학교 교유의 문화권 내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소한 오해들도 의대가 자리 잡고 대학병원이 들어서면서 점차 사라졌다. 또한 교직원들 간의 인적 교분과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주고 받음」이 이루어지자 자연히 이해의 폭과 깊이가 더해졌고, 어느덧 아주대학교의 「한마음 한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성 낙 석좌교수 / 피부과학교실



#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의 유전자적 표지자, 「DPB1 \* 0301」 규명



아주대학교병원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박해심 교수팀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전체 연구에서 아스피린을 복용시 천식증상을 나타내는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을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유전자적 표지자, 「HLA DPB1 \* 0301」을 규명했다.

박해심 교수팀에 따르면,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 환자 76명, 아스피린에 내성을 지닌 천식 환자 73명, 정상 대조군 91명을 대상으로 조직적합성항원 (Human Leukocyte Antigen: HLA) DRB1, DPB1, DQB1 유전자를 고해상도 조직적합성항원 분석법과 일배체(haplotype, 한 염색체상에 있는 단일 유전자 복합체) 분석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환자에서 DPB1 \* 0301 유전자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DPB1 \* 0301가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 진단에 있어 필수적인 유전자적 표지자로 규명된 것으로, 아스피린 약제로 인한 천식을 미리 예측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알레르기와 임상 면역학 분야 최고의 국제학술지로 인정받고 있는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2004년 3월호에 소개됐다.

또한, 박해심 교수는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 환자의 단일염기변이(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에 대한 연구로 여러 가지 효소(LTC4 synthase, Leukotriene receptor 1, Cyclooxygenase 2, 5-lipoxygenase, 5-lipoxygenase activating protein)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아스피린 내성 천식환자에 비해 5-LO(5-lipoxygenase) 효소 유전자의 일배체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의 발병기전 및 치료 약제 개발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Human Genetics 2004년 3월호에 게재됐다.

박해심 교수는 「이번 연구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의 진단에 유용한 유전자 표지자와 치료 약제 투여시 약물반응과 관련된 유전자 표지자, 이들의 구체적인 작용기전 및 아직 규명되지 않은 병인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기 위암, 배 찢지 않고 복강경으로 제거



**조**기 위암 치료에 있어 배를 절개하지 않고 흉터와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복강경 수술 절제법이 정착하고 있다.

이주대학교병원 외과 한상욱 교수에 따르면, 2003년 5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약 1년동안 암세포가 위의 점막층 혹은 점막하층까지 침범한 조기 위암으로 복강경수술을 받은 환자 30명과 비슷한 시기에 개복수술을 시행한 30명의 환자를 비교한 결과, 상처 크기, 출혈량, 수술후 회복기간, 입원기간, 진통제 및 항생제 사용량 등에서 복강경 수술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강경수술과 개복수술을 좀더 자세히 비교해 보면, 평균 수술시간은 복강경군이 240분, 개복군은 238분으로 별 차이가 없었으며, 출혈량은 복강경군이 평균 273ml, 개복군은 평균 362ml로 복강경군이 훨씬 적었다고 한다.

수술후 걷기 시작한 날이 복강경군은 평균 1.5일, 개복군은 2.0일, 가스를 배출한 날이 복강경군은 2.7일, 개복군은 3.9일이었으며, 환자가 유동식을 섭취하기 시작한 날 역시 복강경군은 4.9일, 개복군은 5.9일로 모두 복강경군이 짧았다.

특히, 개복수술을 하면 복부를 약 20cm 절개하지만, 복강경 수술을 할 경우 5cm 정도만 절개하므로 흉터가 극히 적어질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이 복강경군은 평균 11.1일, 개복군은 12.9일, 진통제 및 항생제 사용일수가 복강경군은 4.6일과 5.0일, 개복군은 4.8일과 6.0일로 복강경 수술이 수술 후 회복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에 비하여 수술비용이 많이 들지만(252만원:166만원),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조기 퇴원이 가능하여 수술의 비용은 복강경 수술이 더 저렴하여(447만원:521만원) 전체 진료비용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최근 종합검진,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조기 위암 환자의 발견율이 늘고 있어 복강경을 이용한 최소 절개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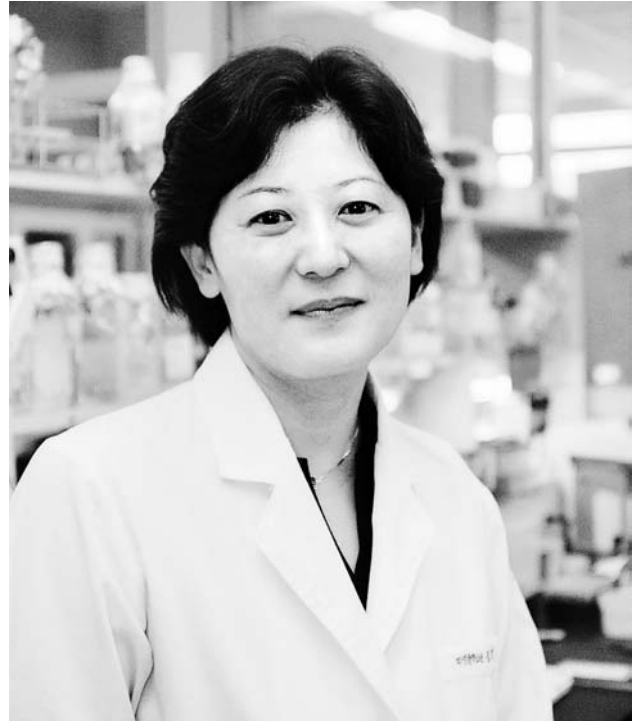


# 영리한 바이러스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

나와 바이러스와의 인연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동물 코로나 바이러스(corona virus)의 증식 및 복제과정을 분자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직접 접하게 되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SARS outbreak 때문에 전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바이러스로, 이전까지는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바이러스 중에서 분자생물학적인 연구가 가장 깊이 있게 되어있는 바이러스 중 하나인 알파 바이러스(alpha virus)를 박사 후 연수과정의 연구로 선택하여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바이러스의 증식 및 복제과정의 연구를 계속하였다.

이들 바이러스의 증식 및 복제과정을 연구하면서 항상 느껴온 점은 이들 바이러스는 너무나 영리하여 우리의 공격을 피해 증식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며, 우리의 약점을 잡아 공격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SARS outbreak도 그 예이다. 또한 모든 바이러스는 각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증식방법이 있으며, 또한 환경 적응능력이 아주 뛰어나며, 돌연변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감염되었을 때 면역계의 공격을 피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바이러스는 옛날부터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독특한 증식방법은 나에게 있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끊임 없이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 되었다. 더욱이 요즘에는 새롭게 출현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조류독감이나 SARS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리므로 바이러스의 증식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국내에 돌아와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감염되어 있으며 간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접하게 되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방법을 완전히 알지 못하며, 세포에서 증식이 진행되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을 위해 세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또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단백질간의 상호작용도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 처음에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연구했던



바이러스들과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여러 면에서 달라서 시스템을 갖추는데 몇 년이 소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케도에 올라서 현재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DNA 복제 및 증식, B형 간염 바이러스 단백질의 발현 및 상호작용,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세포 내에서의 이동 및 세포 내 분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해 나갈 길이다.

기회가 된다면 박사학위 과정에서 공부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를 병행하고 싶다. 또한, 여성 질병의 원인체 중 하나인 질 편모충에 질 편모충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에 질 편모충의 병원성이 바뀌므로, 최근에는 질 편모충 바이러스를 연구하여 숙주와 질 편모충과 질 편모충 바이러스의 관계를 연구해 보고 싶다. 독특하고 영리한 바이러스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나의 과제이다.

김 경 민 교수 / 미생물학교실



# 스티비 윈더의 미숙아 망막증과 마이클 잭슨의 성공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는 후보시절부터 「무식하다」는 비난이 늘 따라다녔고 외국 지도자에게도 실례를 저지르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 스티비 윈더의 라이브 공연장에서 또 한번의 실례를 범했다.

공연장을 찾은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인사를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스티비 윈더에게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아차차! 같이 참석한 사람들을 머쓱하게 만들었지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스티비 윈더는 앞을 전혀 못보는 맹인 가수이지 않은가!) ... 이 날의 해프닝은 당연히 신문마다 「해의 토포」로 장식됐다.

1950년에 태어난 스티비 윈더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는 「미숙아 망막증」을 앓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전혀 볼 수 없었기에 어린 시절 집안에만 틀어 박혀 지냈고 무료함으로 손가락으로 그릇을 두드리며 리듬감을 배웠고, 온종일 라디오를 들으며 생활했다. 그가 「12살 꼬마 천재」로 데뷔 이후 줄기차게 사랑을 받은 덕택에 미국 음반시장에서 비로소 흑백 구별이 현재지 줄어들었다고 하고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도 그 덕택에 존재 가능한 것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한다는데(?) ...

「미숙아 망막증(ROP : Retinopathy of Prematurity)」은 주로 출생 체중이 매우 적은 아기들에서 발생하며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되는 눈의 「망막」을 못쓰게 되는 병이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아기의 체중, 얼마나 일찍 출생했는가 등이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동반된 호흡기관의 문제, 빈혈, 심장질환 그리고

아기의 상태가 생명 유지를 위해 산소 공급이 필요한 정도였는가 등이 「미숙아 망막증」의 발생과 서로 연관이 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사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심한 정도에 따라 시력 예후와 합병증이 달라지겠지만, 정해진 가이드 라인에 의한 선별검사를 하여 일찍 발견하고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비교적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1950년의 스티비 윈더가 현재의 아주대학교병원 안과 유호민 선생님과 소아과 박문성 선생님과 같은 분을 만났더라면 스티비 윈더는 미처 슈퍼 스타로 뜨지 못하고 마이클 잭슨이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못 벌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얼마 전 스티비 윈더가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월머 시력연구소의 의사를 찾았다고 한다. 망막 위에 컴퓨터 칩을 삽입해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하는 기술을 받기 위해서였다. 의사가 하는 말, 「회복 가능성이 매우 적기도 하지만 왜 갑자기 지금까지 안하고 미뤘던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나요?」 그 질문에 스티비 윈더는 「내 아이가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내 딸을 아주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아버지 스티비 윈더의 소망이 잠시나마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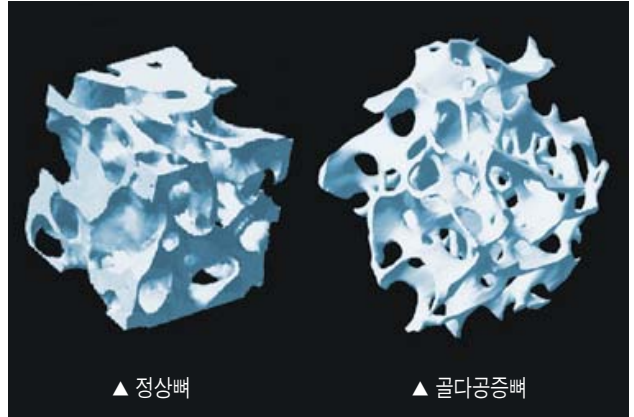
# 골다공증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골**다공증은 노화, 호르몬 부족, 칼슘 감소, 운동 부족 등의 원인에 의해 뼈가 약해져서 구멍이 송송 뚫리고 골절이 생기기 쉬운 질환이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으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진행되어 골절이 발생하여 나타나게 된다. 골다공증으로 유발되는 증상은 허리가 굽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키가 줄어드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척추의 압박골절로 인해 발생한다.

일단 골절이 발생하면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부의 예에서 골시멘트나 수술적 치료로 허리뼈를 복원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더 이상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표준치료이다. 대퇴골절(넓적다리뼈 골절)이 발생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당장 걷지를 못하게 되고, 응급실로 내원하게 되며, 수술로 부러진 뼈를 올바르게 고정시켜 주거나, 대퇴골 경부골절의 경우 둔부관절을 포함한 대퇴골 일부를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큰 수술을 하게 된다. 수술을 성공하더라도 합병증인 폐렴, 혈전색전증(혈액이 굳어져서 딱딱이 되어 혈관을 막는 현상), 욕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 실제로 대퇴골절이 발생한 사람은 1년내 사망할 확률이 약 30% 정도 되며, 대부분 골절 발생 이전처럼 활동을 하기 어렵다(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소리없이 다가와 무섭게 건강을 위협하는 골다공증도 정기적인 검진과 적극적인 예방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좋아질 수 있다. 폐경 이후의 여성이나 60세 이상의 남성은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뼈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정상이거나, 골감소증 정도라면 2년마다 골밀도



촬영을 하고, 골다공증이라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1년마다 골밀도 촬영을 하는 것이 좋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유, 요구르트, 치즈, 생선, 두부 등 칼슘이 풍부하게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하루 1시간 정도 햇빛을 보면서 걷기 운동을 하면 좋다.

골다공증이 이미 발생한 상태라면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 개발된 골다공증 약제들은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1일 1정 또는 1주일에 1정 투약을 하여도 1년 후 골밀도를 약 5% 정도 증가시키며, 골절을 약 50%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약제들은 약간의 위장장애 외에는 부작용도 거의 없다.

따라서 골다공증에 걸렸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한다면 골밀도 감소와 골절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골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제 골다공증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다.



정 윤 석 교수 /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 팔손 노모의 사랑



**해**마다 오월이 되면 1994년 5월, 설레는 마음으로 아 주대학교병원에 첫발을 내딛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작업치료사로서 장애인을 위하여 일하고 싶었던 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을 돌이켜 볼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 준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가족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하여 인생을 배우고, 나눔을 배우며 좀더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개원하고 2년이 지나서였다. 29세의 남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목을 다쳐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고, 손을 쓸 수 없어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런 그를 몸도 불편하신 칠순의 노모께서 간병을 도맡아서 하셨다.

나는 그 환자 분을 위하여 퇴원 후에 무료한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간단하지만 보조기를 착용하고, 손목의 힘으로 자판 치기, 인터넷 접속하기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가 퇴원하고 일년 후 재 입원을 하였다. 그는 건강했을 때 모아 둔 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여 인터넷으로 채팅 및 은행 거래, 주식투자 등 단절된 사회와 유일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컴퓨터를 치는 보조도구가 부러져서 다시 만들기 위하여 입원을 했다. 입원해서 맛보기로 해준 컴퓨터 교육프로그램과 보조도구가 그의 삶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하여 중증 장애인을 대할 때마다 사소한 것이라도 환자의 능력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더 없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곤 한다. 그 후로도 노모는 2년에 한 번씩은 컴퓨터 보조도구를 만들기 위하여 외래로 방문하신다. 그때마다 이제는 팔손이 되신 백발의 노모는 농사일에 중증 장애인 아들 뒷바라지에 분주하시지만 지친 모습보다는 힘이 넘치시고, 손수 가꾸신 푸성귀 보따리를 전해주시실 정도로 여전히 정이 많으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가 하루빨리 향상되어 혼자 생활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을 돌보는 역할이 팔손 노모의 어깨에까지 지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 의료원 ▶▶▶

### 제9대 신임 문창현 의과대학장 임명



아주대학교는 5월19일자로 제9대 의과대학장에 생리학교실 문창현(文昌玟) 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문창현 의과대학장은 1985년 독일 본대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 쾰른 의과대학 생리학연구소 연구원으로 봉직하였으며, 1989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의과대학 학장보, 의학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뇌질환연구센터 부소장, 대학원의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특히, 문창현 의과대학장은 의과대학 설립 초기부터 주요 보직과 입학정책위원, 자체 평가위원회 위원장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및 행정체계 정착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살아 있는 비전 만들기」를 위한 비전 수립 워크숍 개최



의료원은 김효철 의료원장을 비롯한 47명의 비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28일, 29일 양일에 걸쳐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살아 있는 비전 만들기」를 위한 워크숍을 IG화재 인재니움에서 개최했다. 첫 날에는 의료원의 기존 비전들에 대한 검토와 각 소위원회별 환경, 고객, 역량, 경쟁자 등의 SWOT 분석결과 발표 및 토론을 했다. 이어 갈랩앤컴퍼니 측의 「비전 수립 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의료원장 등 4명의 경영진이 사전에 작성한 비전 초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둘째 날은 경영진이 제시한 초안을 바탕으로 사명, 비전, 핵심가치 statement 초안 수립을 위한 조별 토론후 statement 확정을 위한 열띤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의료원 10주년 기념, 「아주랑 한마당」 바자회 개최



의료원은 1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31일, 6월1일 양일간 병원 북측 현관 옆에서 「아주랑 한마당」 바자회를 개최했다. 바자회는 교직원,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으며, 수익금 전액은 학대받는 이동을 위한 진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바자회 외에도 떡거리 장터와 페이스 페인팅, 풍선공예, 페이스 페인팅, 장애우 그림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참가자들이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 의료원, 사회공헌활동 지속적으로 전개

의료원은 지역사회의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영양팀은 지난 5월19일 독거노인에게 밑반찬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밑반찬 나누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봉사활동에는 퇴근길 안부 인사와 함께 밑반찬을 전하는 교직원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18일, 5월16일 외국인 근로자 무료의료봉사활동을 펼친 것을 비롯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월18일에는 약 2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진료했으며, 5월16일에는 무료진료 외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산부인과 부인암 검사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영화 동아리는 정기적으로 아동보호시설인 경동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5월15일에는 경동원의 7세 이상 아동 19명을 병원으로 초청하여 만화 영화 「니모를 찾아서」를 관람하고, 병원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지역주민과 함께 세계적 문화유산, 화성 순례

의료원은 지난 5월2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교직원,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성순례」 행사를 가졌다.

이번 화성순례 행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수원외의 자랑인 세계적 문화유산 「화성」을 직접 체험하기 위한 것으로, 연무대를 출발하여 방화수류정, 화홍문, 장안문, 장안공원, 화서문, 화령전, 화성행궁을 순례했다.

### Ajou Subinternship Program 실시



의료원은 전국의 의과대학생에게 다양한 임상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아주대학교병원을 직접 체험하는 「Ajou Subinternship Program」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7월12일부터 8월21일까지 각 과정별로 2주간 실시 예정인 「Ajou Subinternship Program」은 20개과에서 23개 과정을 운영, 총 4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의료원은 임상실습 외에도 의료원 소개, 화성순례,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를 구성, 효과적인 의료원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의료원, 에너지 절약 TF팀 구성



의료원은 지난 5월1일부터 에너지 절약 TF팀을 구성, 에너지 절약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TF팀은 2003년 에너지 사용대비 2.5% 절감을 목표로, 각 부서별로 에너지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에너지 절약 활동을 수행케 하고, 우수 부서 활동사례 발표회 및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원, 건강 마라톤대회 개최**



의료원은 전 교직원 및 가족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건강 마라톤대회를 6월1일 화요일 오후 5시 개최했다.

이날 교직원 및 가족, 협력업체, 협력병원 직원 300여명은 교직원의 건강과 화합을 바탕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원하며 병원 ~ 월드컵 경기장 ~ 이화교 ~ 병원, 10km 구간을 완주했다.

**아주 동그리, 장애우 초청 볼링대회 열어**



의료원 볼링 동아리 아주 동그리는 의료원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5월29일 토요일 오후 1시 단오 볼링장에서 「장애우 초청 친선 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장애우 초청 볼링대회는 장애우 모임인 한마음클럽 회원과 아주 동그리 회원 및 희망 교직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여 혼성 3인조 경기와 개인전으로 진행됐다.

**의과대학 ▶▶▶**



**이성낙 석좌교수, 제8회 인당의학교육대상 수상**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이성낙 석좌교수가 한국의학교육학회로부터 제8회 인당의학교육대상 수상자로 선정, 지난 5월27일 오후 5시30분 서울아산병원 내 울산의대 지하 강당에서 제8회 인당의학교육대상을 수상했다.

인당의학교육대상은 한국의학교육학회가 의학발전에 공이 크거나 의학교육 학술업적이 뛰어난 의학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성낙 석좌교수는 지난 30년간 대학에 봉직하고 있으며, 국내 처음으로 연세의료원에 베체트병 특수클리닉을 개설, 1996년 세계 최초로 베체트병의 원인이 단순 포진 바이러스임을 확증 등 후학 양성과 의학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각종 학술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주대의료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유희석 교수와 권종희 전공의 등이 발표한 포스터가 지난 4월2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부인종양 콜포스코피학회 제19차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로 선정됐다. 이번 포스터는 「High syndecan-1 expression in endometrial carcinoma is related to pathologic risk factors」라는 제목의 연구로 자궁내막암 침윤기전에서 syndecan-1의 임상적 의의에 대해 새로운 제시를 함으로써,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최우수 포스터로 선정됐다. 한편, 연구팀은 부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의료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소화기내과학교실 이광재 교수는 지난 5월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2004년도 춘계 소화관운동학회에서 「위의 기계적 예민도가 증가된 사람 모델에서 위의 팽창에 대한 과민성과 관련된 증상들」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중의계약 연구상을 수상했다. 외과학교실 정용식 교수는 지난 5월8일 대구에서 열린 2004년도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유방암에서 cytokeration과 mammaglobin을 이용한 골수미세전이의 측정」이란 제목의 논문이 우수 포스터 상을 수상했다.

한편, 치과 김도완 레지던트(3년차)는 4월23,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04년 대한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Swing-lock 디자인을 이용한 국소의치(지도교수 고석민)」란 논문으로 우수 발표상을 수상했으며, 핵의학과 신규설 방사선사는 5월15일 개최된 대한핵의학기술학회에서 「방사성 옥소(I-131) 운반용기의 표면오염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으로 학술상을 수상했다.



**의과대학 교수 워크숍 개최**



의과대학은 5월14일 금요일 원천 유원지 내 나드리 리조트에서 120여명의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2004-1학기 교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교육대학원 이장익 교수가 「Teaching in University : Why & How」에 대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양은배 교수가 「의과대학 교수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 강의하는 등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의과대학은 5월14일 금요일 원천 유원지 내 나드리 리조트에서 120여명의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2004-1학기 교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위교 교수, 연구과제 수혜**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이위교 교수가 「Enterococcus species의 내성 기전 및 지역간 균주의 유전적 상관성 조사」라는 주제로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 세부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했다.

연구기간은 2004년 4월26일부터 12월10일까지이며, 연구비는 10,000,000원이다.

**병 원 ▶▶▶**

**내분비대사내과, 무료 골다공증 검진 실시**



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5월19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가정의 달 기념 「어머님과

따님이 함께하는 무료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했다.

또한, 무료검진 외에도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가 「건강한 뼈 만들기」란에 대해, 영양팀 최선정 팀장이 「뼈에 좋은 음식」에 대해 강의, 골다공증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만성 폐질환 환자를 위한 호흡재활교실 열어**



병원 간호부 11층 동병동(수간호사 김창희)은 만성 폐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30분 13층 회의실에서 호흡재활교실을

열고 있다.

강의 내용은 ▲ 호흡근 훈련 ▲ 약물요법 ▲ 영양관리 ▲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 등이며, 특히 운동요법과 기구사용법에 대해 직접 시범을 보여 주면서 환자들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건강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실습 및 교육하여 환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방사선종양학과, 건강 기체조 프로그램 운영**

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아주대학교병원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건강 기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수요일, 오후 12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아주대학교 체육관 205호에서 열리는 건강 기체조 프로그램에서는 국선도 김기영 교수가 직접 체조, 단전호흡 및 명상을 교육한다.

건강 기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주임교수는 「외국에서는 요가나 기체조 등을 암 환자에게 적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암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환자 개개인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운동인 국선도와 명상요법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아과 환아를 위한 인형극 공연 개최**



병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월8일 토요일 오후 2시 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소아병동에 입원 중인 환아들을 위한 인형극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어린이들을 위한 율동동요, 마술공연이 있었으며, 삼성전기 자원봉사자들이 「공쥐팔쥐」 인형극을 공연하여 입원 중인 환아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한, 소아과는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아들을 대상으로 그림자극을 실시했다. 지난 5월4일 시상식을 가졌으며, 입원 중인 환아 모두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선사했다.

**박희봉 외과의원 등 4곳과 협력병·의원 맺어**

병원은 수원시의 박희봉 외과의원, 아주하나방사선과의원, 용인시의 초이스 이비인후과의원, 당진군의 당진백병원을 협력 병·의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병원은 158개 병·의원과 협력관계를 맺게 되었다.

**소아암 환자 모임, 「온누리회」 야유회 가져**

소아암 환자 모임, 「온누리회」는 5월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아주대학교 잔디밭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온누리회는 매년 환자 및 보호자간 친목과 정보 공유를 위한 야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신문 ·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4.28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 근시 연구
4.28	경인일보	외과 한상욱 교수	초기위암 복강경 수술 '회복 빨라'
4.28	경기일보	외과 한상욱 교수	조기 위암 '복강경 수술법' 효과
4.30	중앙일보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독
5.1	매일경제	외과 한상욱 교수	위암 조기에 발견하면 개복않고 복강경 수술
5.4	중앙일보	가정의학과 박설훈 교수	비타민, 모자라면 큰 일... 지나치면 더 큰 일
5.12	조선일보	예방의학과 조남환 교수	한국인 공복혈당치 100 이상엔 당뇨병
5.12	조선일보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대사중추군' 성인병은 한뿌리, 동시다발한다
5.19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 류머티즘 관절염
5.19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자궁 외 임신
5.21	한국경제	피부과 이성낙 교수	인당의학 교육대상 수상
5.24	동아일보	재활의학과 이일영 교수	중증장애인 요양원 태부족 전문시설 설립 도와주세요
5.25	경향신문	가정의학과 김광민 교수	안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조여야' 겠습니까
5.25	경기일보	응급의학과 조준필 교수	'안전도시 수원' ... 아시아 헬릭센터로 뜬다
5.28	조선일보 외	의학유전학과 김현주 교수	희귀질환 진단·치료 심포지엄 개최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4.29	KBS병원24시	소아과 배기수 교수	꿈꾸는 아이
4.29	EBS 생방송 60분 부모	소아과 홍창호 교수	아이의 사춘기, 엄마의 갯년기
5.11	KBS 생로병사의비밀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	만성 간질환의 보편 대체의학
5.20	SBN 뉴스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	골다공증 예방
5.24	KBS 제2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의학유전학과 김현주 교수	희귀·난치성질환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방향
5.25	YTN 뉴스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	고려홍삼, 위장병 예방
5.26	SBS 아침종합뉴스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	홍삼, 위장병에 탁월한 효과
5.27	MBC뉴스투데이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	홍삼, 위장병 치료
5.27	KBS 9시뉴스	내분비대사내과 이관우 교수	살 안찌는 쌀 나온다
5.27	MBC 가정의달 특집 가족의힘	의학유전학과 김현주 교수	더 큰 가족을 향해서 가족만들기 프로젝트
5.27	KBS뉴스9	내분비대사내과 이관우 교수	살 안 찌는 쌀 나온다

**건강증진센터 성인병 및 암, 뇌졸중 예방을 위한 숙박검진 및 암검진 도입**

아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숙박검진 및 암검진을 새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숙박검진은 1박2일에 걸쳐 PET CT, MDCT, MRA & 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성인병 및 암, 뇌졸중 예방을 위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검사시 전문요원이 1:1로 동반하여 안내한다. 또한 입원 첫날 주치의와 평소 궁금하던 건강문제를 비롯한 가족력, 건강 이력 등을 상담하여 검진프로그램에 반영하며, 퇴원일에 검진결과의 대부분을 주치의로부터 설명들을 수 있고, 검진결과는 CD-Rom으로 제공된다. 숙박검진 비용은 380만원이다.

한편, 암검진은 한국인의 질병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진 프로그램으로, I 형과 II 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암검진 I 형은 230만원, II 형은 160만원으로 8시간 정도 소요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건강증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기증은 사랑입니다

# 장기기증, 새 생명을 전하는 희망입니다



**오** 후에 졸업시험이 있어서 시험장소로 가고 있던 중이었다.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곳은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잠재 뇌사자 발생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 날 이후 일주일내에 두번씩 네명의 잠재 뇌사자 있었으며, 그 중 세명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었다.

장기이식코디네이터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와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따로 없다. 24시간이 대기시간이고, 뇌사자 관련 업무로 밤을 새우며, 2박3일이고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현재 국내에서 뇌사판정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병원은 14개 병원이며, 타 병원에서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이송을 위해서 밤늦게 의료진들이 나가 이송을 한다. 앰블런스 안에서는 뇌사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혈압약, 수액 등을 투여하며 혹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조바심을 내며 이송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이송한 잠재 뇌사자라고 하여서 모두가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두번의 뇌사판정과 그 후 뇌파결과 그리고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 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 장기이식코디네이터는 장기기증 뇌사자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뇌사상태를 평가하고 가족 면담과 법적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서류를 구비한다.

기증자의 죽음과 수혜자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심적인 부담과 갈등이 된다. 기증자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많이 슬퍼한다.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장기기증으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힘들게 결정한 가족들의 장기기증으로 인

하여 각종 말기 질환자들은 새로운 장기를 이식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면을 빌어 뇌사자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뇌사판정 진행과정과 장기적출과정 등 바쁜 중에도 힘써 주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은 생체이식이 대부분이만 뇌사자의 장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기증 홍보활동과 교육이 더욱 더 절실하다.

김 지 혜 / 장기이식코디네이터

제 몸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장기기증은 세상의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가슴시리도록 고귀한 이 사랑을 베푸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장기이식 TFT ·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문의전화 031-219-5547 | 016-9277-5376



# 조재현 교수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

매주 수요일 한겨레 신문에서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 조재현 교수를 만날 수 있다. 2003년 10월부터 한겨레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는 새롭고 재미있는 소재로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조재현 교수를 만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의 인기 비결에 대해 들어봤다.

한겨레 신문에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소개한다면 ...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는 말 그대로, X-ray나 초음파 등의 영상과 함께 관련 건강정보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영상의학 영역에서 접할 수 있는 유용하고 재미있는 소재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주로, 흔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의학상식을 영상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2003년 10월 말부터 게재를 시작하여 벌써 7개월이 넘게 연재하고 있다. 처음에는 6개월을 예상하고 연재를 시작하였으나 독자들의 반응이 좋아 1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독자들에게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가 인기가 있는 것은 일단,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상식을 영상과 함께 설명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신빙성을 더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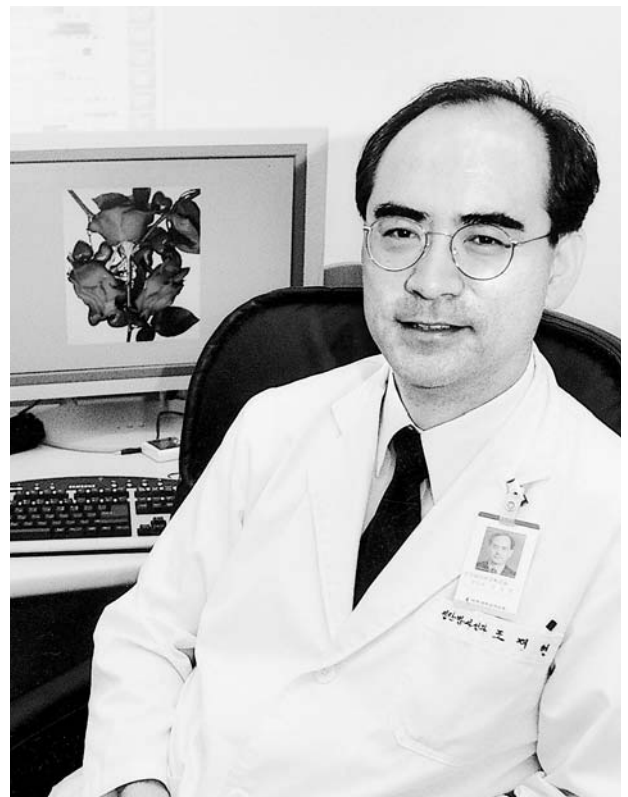
또한,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내용 중간 중간에 우리 몸에 있는 하트 모양을 소개한 내용이나 개와 뽀뽀하는 영상, 꽃을 엑스레이로 찍은 영상 등 재미있고 새로운 소재를 섞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한 것도 인기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이러한 기사를 쓰게 됐나?

개인적으로 영상의학학회 홍보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다. 학회 홍보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누군가로부터 영상과 함께 건강이야기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았다. 분명 학회 홍보에도 좋은 기회가 되고, 독자들에게도 유용한 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여러 신문사에 게재 여부를 논의하였고, 한겨레 신문사에서 흔쾌히 제의를 받아들였다.

매주 원고를 쓰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매주 소재를 찾고 자료를 모으고 원고를 쓰는 게 쉬울 리가 없다. 사실, 지금이라도 그만하자고 하면 정말 흥분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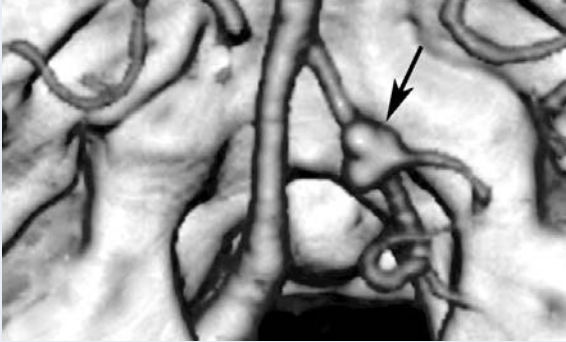


연재를 시작한 초기에는 학회 차원에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시작할 때만 해도 3개월 정도 분량의 소재와 원고를 미리 확보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미있는 소재를 찾기도 어려워지고, 원고를 부탁할 교수님들도 적어지고, 원고 마감시간에 쫓기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원고 때문에 쉬는 날에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많다.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를 읽은 독자들에게서 피드백이 올 때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현재 기사 하단에 메일 주소가 함께 게재되고 있는데, 메일을 통해 기사가 재미있었다는 반응이나 여러 문의가 들어온다.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에게는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드

##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 - 몸 곳곳에 숨어있는 ♥ 모양 신기하죠?



다음 영상들은 우리 몸 곳곳에 숨어 있는 마음들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먼저 위의 왼쪽 사진은 뇌혈관의 동맥류가 하트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의 오른쪽 사진은 흔히 축농증이 생기는 부위인 상악동이 하트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래 왼쪽 사진은 엉덩이 쪽의 꼬리뼈 뒤쪽 척수 속에 일종의 유사 종양이라고 할 수 있는 척수낭이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래 오른쪽 사진은 방광이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다. 우리 몸 곳곳의 하트 모양을 영상으로 살펴보았는데 갈수록 차가워져 가는 세월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따스한 마음을 한 번 찾아보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2003년 12월24일 한겨레 신문 중에서

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사를 재미있게 잘 읽었다는 인사를 받을 때도 나름대로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회를 알리고,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 지금까지 연재된 기사 중 가장 기억나는 내용은?

주변에서 가장 반응도 좋았고, 개인적으로도 크리스마스에 게재된 『몸 곳곳에 숨어있는 ♥모양 신기하죠?』가 가장 기억이 난다. 이 기사는 영상의학학회 홍보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는 영동세브란스병원 정태섭 교수가 제공한 소재로, 필름 영상에서 우연히 우리 몸 곳곳에 있는 ♥모양을 발견하여 쓴 것이다. 관독실에서 숨은그림 찾기 하듯 영상을 뜯어보면 뜻밖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기도 한다. 주로 내가 의학적인 부분의 소재를 많이 쓴다면, 정태섭 교

수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색다른 소재를 많이 제공한다.

###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면?

병은 환자 자신이 가장 잘 알아야 극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는 객관적인 영상을 통해 환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일반인은 물론 임상 의사들에게도 영상진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검사와 필요한 검사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눈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손 미 선 / 홍보팀 〉



##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약시는 수술로 치료 할 수 없나요?



**Q** 8세 초등학교 남자 아이 어머니입니다. 칠판 글씨가 안보인다고 해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약시라고 합니다. 시력은 0.4 정도입니다.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지요? 혹시 시력을 잃을까 걱정입니다.

**A** 약시란 시력이 나이에 맞게 발달되지 않아 안경교정 등으로도 정상시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 만 6~7세가 되면 1.0의 시력으로 발달이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난시나 원시, 사시 등이 있으면 정상시력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녀분의 경우 난시가 원인이 되는 약시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눈 모두 0.4의 시력인지 한쪽 눈만 0.4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시를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으며, 시력을 완전히 잃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약시라면 일찍 발견해서 필요하면 안경도 착용하고, 가림치료 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소아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과 장 윤 희 교수〉

## 아이가 고관절 탈구로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어요

Q

아이가 고관절 탈구로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으니 아이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아줘도 되는지, 목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A

고관절 탈구는 하루 아침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며,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아이의 경우 안아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보조기는 고관절의 굴곡 외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아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앞으로 업어주는 때도 가능하나, 다리를 굴곡하고 있어 엄마의 가슴에 무릎이 닿아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불편하므로 가급적 앞으로 업어주는 때에 아기를 전면을 바라보고 넣고 앉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목욕 시킬 때는 보조기를 풀게 되는데 이 때에는 반드시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다리를 벌리고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급적 24시간 보호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형외과 조재호 교수〉

정형외과 외래

031-219-5545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독자 여러분께 좀 더 유익한 의학정보지로 다가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참여는 보다 나은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건강 Q & A / 나의 건강상식은

궁금해 하시는 건강문제에 대해 전문의에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문의해 주시면 만족스러운 상담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아주대병원 이용에 있어 느끼신 점 혹은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최대 200자 원고지 5매(A4 3분의 2장 정도) 이내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보다 좋은 병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 나누고 싶은 이야기 / Zoom & Zoom

아주대의료원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 따뜻한 사연이 있는 분을 아주대의료원소식에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제보 · 원고 보내주실 곳

- 전 화 031-219-5368 • 팩 스 031-216-6386
- 주 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443-721)
- 이메일 apr@ajou.ac.kr



# 중환자가 많은 만큼 보람도 큼니다



12층 서병동은 소화기질환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병동이  
다. 그러나 12층 서병동은 때론 응급실, 때론 중환자실을 방불케 한  
다. 아주대학교병원이 종합전문 요양기관(3차 진료기관)이자 대학병원으로  
서 지역사회 중환자 치료 및 관리를 중추적으로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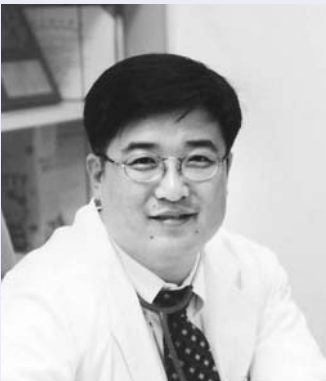
이런 이유로 모든 병동이 그렇겠지만 소화기내과 병동에는 일반적인  
소화기질환 환자보다 말기 암환자, 간성 혼수, 출혈환자, 수술환자 등 언  
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중환자들이 많다. 따라  
서 의료진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응급상황에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  
다. 이외에도 중환자들이 많은 만큼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면담, 욕창관리, 관장, 주사 등 긴장을 요하는 업무가 많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밝고 편안한 분위  
기를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12층 서병동의 20여명의 간호사들의 역  
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2층 서병동은 신미영 수간호사를 비롯하여 20명의 간호사들이 간호업  
무를 전담하고 있다. 소화기내과 병동 경력이 5년에서 10년으로 기본적인  
간호업무 수행은 물론 하루 24시간 365일을 각각의 환자들마다 금기시 되  
는 수많은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며,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육체

##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가 말하는 12층 서병동



아주대학교병원 12층 서병동에 자리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병동은 위장, 간, 췌담도계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여건이 닿는 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늘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곳이다.

소화기내과 의료진들은 살아가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맞닥뜨려 자기 자신을 재정비하게 되는 시간에 직면한 60명의 환자들에게 가능하면 최상의 의료혜택과 치료의 기쁨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1년 365일 늘 겸손하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밝은 모습으로 빈틈없는 간호를 제공하는 12층 서병동 20명의 간호사들이 있기에 우리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항상 최상의 치료결과를 기대하며 환자치료에 임할 수 있다.

툭나바위가 맞물려 쉽게 돌아가듯 우리 소화기내과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타과의 화합과 발전은 12층 서병동 소화기내과 병동 더 나아가 아주대학교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적·정신적 상태를 의사에게 전달하고, 응급상황시 빈틈없는 응급조치를 수행하여 주고 있다.

데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환자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12층 서병동 식구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간호사 한명 한명의 능력있는 간호업무와 함께 환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거리감을 없애는 적극적 자세는 의료진과 환자의 거리감을 없애고 있다. 이는 소화기내과의 실력있는 의사와 최신 치료기술 도입 그리고 의료성과와 함께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쾌유를 앞당기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간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 서현주 간호사가 말하는 12층 서병동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퇴원하셨던 환자분이 다시 입원했다. 다소 아윈 얼굴로 인사말을 건네는 그 분을 보니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이내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다른 직업과는 달리 단골을 반길 수 없는 곳 이 병원이 아닌가!

눈에 띄게 누런 얼굴을 한 황달 환자, 간성 혼수로 빈번한 관장을 요하는 환자,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언제나 긴장시키는 출혈환자 ... 병의 사연도 깊이도 제각기 다르지만 자신의 병이 우선이라 생각하기에 누구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하루에도 수 차례 울리는 응급벨과 콜벨에 몸이 먼저 반응하고 응급상황 뿐만 아니라 사소한 애로 사항까지도 꼼꼼이 해결해야 하기에 때로는 지치기도 한다.

그러나 힘겨운 병마와의 싸움에 누구보다 지쳐있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힘든 것보다 보람이 앞선다. 그리고 때론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환자와 가족들의 모습에 희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깨닫곤 한다.



# 키, 이것이 궁금합니다



## 키는 가을에 많이 크다?

키는 봄철에 가장 많이 크고, 가을철에 가장 적게 큽니다. 이와 반대로 체중은 가을철에 가장 많이 늘고, 봄철에 가장 적게 늘니다.

〈정답 : X〉

## 키는 하루 중 언제 측정해도 같다?

키는 전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난 아침에 측정할 경우 실제로 가장 큰 값을 보입니다. 이것은 척추의 연골(Disc)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 동안에 활동을 함으로써 중력에 의해 척추간 원판들의 높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에 측정한 키 값보다 적게는 0.7cm, 많게는 1.5cm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키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성장하였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키 측정의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야 합니다.

〈정답 : X〉

## 농구를 하면 키가 더 크다?

적당한 운동은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였을 때 키가 더 많이 크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구를 한다고 키가 더 많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구선수가 큰 것은 이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키가 큰 학생들이 농구선수로 발탁되어 선수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다른 학생들 보다 성장 그래프가 더 높은 곳에 있으며, 이 그래프를 따라가므로 최종 어른 키도 큰 것입니다.

〈정답 : X〉

## 초경을 시작하면 키가 많이 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사춘기 전반에 많이 큽니다. 초경은 보통 사춘기 후반부에 시작하는데 일단 초경을 시작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현재 키에서 10cm 이상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딸의 성장에 관심이 있을 경우는 적어도 초경을 하기 전에 병원에 데려오는 것이 키에 대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답 : O〉

## 대학교에 가서도 키가 자란다?

남자의 경우 만 17세~18세, 여자의 경우 만 15세가 되면 정상적인 경우 성장판이 닫힙니다. 물론 성장판이 늦게 닫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 경우를 체질성 성장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성장판과 신체 진찰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되어야 하며, 만일 성장호르몬 결핍증일 경우에는 치료가 늦어질 경우에는 그에 따른 키의 손실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년에 성장속도가 4cm 이하로 크거나 또래에 비해 10cm 이상으로 키가 작을 경우에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답 : X〉

황진순 교수 / 소아과학교실



# 친절, 봉사, 박애로 함께하는 용인서울병원



당시의 목표였던 지역사회의 진료봉사 뿐 아니라 나아가 진료의 전문화에도 박차를 가함으로써 지역 의료기술 향상 및 의학연구 부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생명존중의 구현을 향한 한결같은 친절 한 마음으로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가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용인서울병원의 의료진들이 정예화된 의료진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인간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거듭 생각하는 의료정신에서 비롯된다. 다른 무엇보다 용인서울병원의 가장 큰 자부심은 바로 생명존중의 구현을 향한 한결같은 친절함이며, 친절, 봉사, 박애라는 원훈도 이러한 마음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의 의료진은 수많은 수술 성공사례를 기록하였으며 종합검진센터 운영, 경기지역 응급의료 병원으로의 진료확충 등 전반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용인지역 굴지의 병원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용인서울병원의 전 의료진과 직원은 병원을 찾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 육체의 질병 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치유하는 전인치료를 목표로 하는 실천의지를 가지고 첫 만남에서 병원을 나서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지역사회를 위한 진료봉사 정신으로

용인서울병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진료봉사」라는 뜻을 품고 도농복합지역인 용인시 고림동에서 2002년 6월 개원하여 오는 6월이면 두 돌을 맞이하게 되는 준종합병원이다. 2003년 6월에는 의료의 사회 환원을 목표로 한 이재남 이사장이 개인 재산을 비영리 법인에 무상 출연함으로써 의료법인 효심의료재단 용인서울병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용인서울병원은 개원 후 2년여 동안 일관된 생명존중의 이념으로 인술을 펼쳐 용인지역 굴지의 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 진료의 전문화 추구

용인서울병원은 9개 전문 진료과에 12명의 전문의를 두고 154병상을 운영 중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 응급환자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최첨단 개방형 MRI실과 전신 컴퓨터 단층촬영실, 유방암 진단실, 칼라초음파 진단실을 갖추고 있고 보건예방사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종합검진센터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유소견자에 대한 각 전문의 진료 연계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특수혈액진단 검사실에서는 각종 암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현대식 장례시스템 구축으로 접객실을 별관으로 운영 중인 것과 외래환자 전용 주차시설을 별도로 운영 중인 것도 이 병원의 자랑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용인서울병원은 개원

## 2004년에도 日新又日新 하는 용인서울병원 되기 위해

2004년 용인서울병원은 지역병원으로서 안정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진료의 전문화 및 효율적 조직관리를 통하여 의료수익을 증대하며, 직원들의 친절의식을 더욱 강화한다는 경영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현재 다수의 환자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대학교병원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도 환자의뢰의 편리화를 위하여 시도된 온라인 진료의뢰/회신시스템 구축이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높은 환자 서비스의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김 영 배 팀장 / QI팀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축기금 모금 현황

구 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 간	4명	3,500,000원	7,424,000원
누 계	349	1,838,475,531원	1,803,587,331원

성 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	-----	---------

### <의료원 납입분>

만도 위니아(주)	1,500,000	특판행사 수익금 후원
이승희	500,000	만도 위니아 특판 팀장
장진호	1,000,000	의학부 장미숙 학부모님
산부인과학교실	500,000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분납분	3,924,000	(교직원 급여 공제)

(가나다순)  
2004. 4. 27~5. 24



**「제5회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심포지움 및 「한국희귀질환연맹(KARD)」 총회 개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유전학과와 한국희귀질환연맹이 2004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제5회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심포지움 및 「한국희귀질환연맹」 총회를 개최했다.

2000년부터 매년 5월말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번 심포지움은 「희귀질환」에 관심있는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일반인, 환자 및 보호자를 모시고 「희귀질환 치료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다.

작년 심포지움에서 「희귀질환 DB 구축과 희귀질환 지원정책」, 「희귀질환자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주제로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희귀질환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과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움 I은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주) HOW 김완진 PD) ▲ 희귀병 아동돕기, 「제5회 꼬마 마라톤대회」(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천시회 이장숙 회장) ▲ 희귀질환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은미 교수) ▲ 희귀질환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신현기 교수)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움 II는 ▲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현황(아주대 의대 김현주 교수) ▲ 희귀질환 아동의 외과적 치료(고대 구로병원 송해룡 교수) ▲ 유전질환의 착상전 진단(삼성제일병원 강인수 교수) ▲ 줄기세포 연구와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전망(아주대 의대 박준성 교수)의 발표로 진행됐다.

〈한국희귀질환연맹 031-216-9230 / www.kard.org〉

진료과명 유선번호	의사명	진료시간 (요일/시간)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관절염 내과 4310	강신영	5818		월	수부 및 상지외과	
	남중훈	5902		화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 질환, 류프스, 통풍	
	민병현	5543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척추외과	
	원애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수부 및 상지외과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진료과명 유선번호	의사명	진료시간 (요일/시간)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유전학 클리닉 5979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통증 클리닉 5896	김찬	4331	월, 수, 금		삼차신경통, 다관종, 수족냉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한경림	4331	해외연수중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두통, 교감신경위축증	
유방 클리닉 4744	임번진로	4332		월, 화, 목, 금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등 암성통증 기타	
	김명욱	4743	목		유방질환, 난치성 소화기 질환	
	정용식	4743	월, 화, 토*	월*, 목	유방질환	
	윤태일	4743	수, 금	월*	유방질환, 내분비 질환	*은 말포름 시술만 시행
학습 발달장애 클리닉 5814	신윤미	5814		화	소아·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조선미	5814	금, 토	수, 금	심리검사 프로그램	

전문클리닉명		의사명	진료시간 (요일/시간)	오 전	오 후	비고
소화기 내과	간 암 클리닉 5976	조성원	5969	월, 화, 목		
		정재연	5963	금	화, 수, 목	
		왕희정	5753	금	화, 금	
		원재환	5863	해외연수중		
순환기 내과	심부전 및 판막질환 클리닉 5717	신준환	5973		화	
호흡기 내과	여행자 예방접종 클리닉 4730	최영화	4730	월, 목	수	
알레르기 클리닉 내과	별목(곤충독) 알레르기클리닉 5902	박해심	5905	월, 금		
		남중훈	5905	화, 토	목	
정신과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클리닉 5814	임기영	5810	화	목(19:00~21:00)	
피부과	안면 색소 클리닉 5917	강희영	5914	수, 금	월, 수(레이저치료) 목	
흉부외과	하지 정맥류 클리닉 5752	최훈	5752	화, 목	화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 수술클리닉 5664	신용삼	5664	해외연수중		
		김선용	5858	수		
성형외과	구순 구개열 클리닉 5614	박명철	5611	수		
		안면 윤곽 미용클리닉 5614	정재호	5612	화, 목	금
산부인과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 5597	황경주	5597	월, 수, 금	월, 금	
		김미란	5597	화, 목, 토	화, 목	
안과	콘택트렌즈 클리닉 5673	문상호	5671		화(1주, 3주)	
		움직이는 의안 클리닉 5673	문상호	5671		화(2주, 4주)
비뇨기과	오실 금클리닉 5585	최종보	5587	화, 금	수	
		김영수	5586	수	금	
가정의학과	비만 클리닉 5959	김범택	5957	월, 수, 목	금	
치과	인공치아 이식클리닉 5869	황병남	5869		화, 목	
		고석민	5869	화	수	
		황병남	5957	금	월	

#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4년 6월1일 현재)

외래진료 접수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전 11:30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일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내과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금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체·담도질환		
	함기백	5963	월, 목	화	위장질환		
	이광재	5963	화, 금	목	위장질환, 위장관 기능장애		
	유병무	5962	월, 수	금	체·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수, 토	월	위장 질환, 대장질환		
	정재연	5962	금	화, 수, 목	간질환		
	심성준		목		소화기질환	★	
	김중수			월	소화기질환		
	최준혁			금	소화기질환		
순환기내과	탁승재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신준한	5975	월, 목	화	관상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		
	황교승		목	월, <b>☎</b>	부정맥, 심전기생리검사, 전도도차별제술, 인공심박동기		
	윤명호	5975		화, 목,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최소연	5975	금	수,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유상용		월		심장혈관질환	★	
	안성균		화		신장혈관질환	★	
	최태영	5975	수, 금		고혈압, 심장질환	★	
	최병주	5973	토	수	고혈압, 심장질환	★	
	최정현	5973		월	고혈압, 심장질환		
호흡기내과	황성철	5967	월, 화, 수, <b>☎</b> , 금	목	폐암, 감염성폐질환, 폐결핵, 만성기침		
	박관주	5967	해외연수중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학		
	최영화	4731	월, 목	수	발열, 감염질환, 에이즈, 예방접종, 결핵		
	신승수	5968	화, 수	월, 금	만성폐질환, 중환자치료, 폐암, 폐결핵		
	오윤정	5968	월, 수, 목	화	폐결핵, 만성폐질환, 폐암, 만성기침		
	박주현		금, 토	월, 화	만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중환자치료, 폐결핵		
	최영인			수, 금			
	일반진료	5968		수	호흡기질환		
	내분비내과	이관우	5956	월, 수, 금	목	당뇨병, 내분비대사질환	
	정윤석	5961	화, 목	월, 금	골다공증, 뇌하수체질환		
김대중	5955	월, 화, 목	수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갑상선질환			
일반진료	5961	토	수	내분비대사질환			
신장내과	김홍수	4741	월, <b>☎</b> , 수, 금		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b>☎</b>	월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정혁준			화, 목	신장질환		
	송영수		토	수	신장질환		
	일반진료	5971		금	신장질환		
증양혈액내과	김호철	5992	수, 금		림프종, 골수종, 백혈병,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임호영	5991	월, 화, 목		식도·위장·대장·직장암, 각종 고형암		
	최진혁	5994	수, 금	월	두경부·식도·폐암, 유방암, 각종 고형암		
	박준성	5992	월, 화, 목	화, 목	혈액질환, 종양		
	일반진료	토	월~금		각종 암 및 혈액질환		
알레르기내과	박해심	5905	<b>☎</b> , 수, <b>☎</b>	수	천식, 알레르기질환		
	남동호	5905	화, 토	화, 목	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루푸스, 통풍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질환, 루푸스, 통풍		
	김상하	5905	목	화, 금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질환		
	일반진료			월	천식, 알레르기질환		
내과일반	5970	월~토	월~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일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아과	홍창호	5620		수, 금	청소년 질환, 성장과 발달		
	김성환	5616	화, 목, 금	<b>☎</b>	신경계질환, 간질, 발달지체		
	배기수	5623	월, 화, <b>☎</b>	목	신장질환		
	이수영	5623	수, 목	<b>☎</b> , 화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박문성	5617	월, 수	<b>☎</b> , 금	미숙아, 신생아질환		
	정조원	5621	<b>☎</b> , 금	월	심장질환		
	황진순		월	<b>☎</b> , <b>☎</b> , 금	소아내분비 및 유전대사 질환		
	박준은		<b>☎</b> , 토	<b>☎</b> , 목	소아혈액·종양질환		
	석효정		월, 화	월, 금	소아일반질환, 알레르기·내분비질환		
	유재은		금	화	소아일반질환, 신생아질환		
신경과	김연희		수	목	소아일반질환, 신경계질환		
	일반진료		목, 토	수			
	토요일은 특진1명, 일반1명의 의사가 주마다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허균	5659	화, 수	월, 목	간질, 치매,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목	월, 금	뇌졸중, 척수, 근육 및 말초신경질환		
	방오영	5657	월, 금	화, 수	뇌졸중, 치매		
	이길후	5657	월, 토	화, 수	뇌졸중, 파킨슨병, 운동장애		
	일반진료	5657	수, 목, 금	목, 금	신경계질환		
	정신과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 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불안장애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이영문		5810	목, 토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우울증		
노재성		5811	수, 목	월, 금	우울증, 조울증 및 신경성 신체장애		
신윤미		5812	월, 금	<b>☎</b> , 수, 목, 금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장애, 언어장애		
피부과	일반진료		화	화, 목			
	이성낙	5912	<b>☎</b> (예약), <b>☎</b> (예약)		베체트병, 화학박피술		
	이은소	5912	월, 화, 목	<b>☎</b> (예약), 수	건선, 여드름, 베체트병(화·레이저치료)		
	김유찬		월, 화, 목	화, <b>☎</b> (예약)	피부종양, 화학박피술(금·레이저치료)		
	강희영	5914	수, 금	월, <b>☎</b> (예약), 목	백반증, 무좀, 권추피부염 (수·레이저치료)		
외과	이지연		월, <b>☎</b> (예약), 금	월, <b>☎</b> (예약), 금	색소성 질환 (목·레이저치료)		
	레이저진료			<b>☎</b> , 수, 목, 금	예약에 의함		
	일반진료	5913	월~토	월~금			
	김명옥	5761	월,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용관	5756	화	화, 수	식도, 위장질환		
외과	소의영	5756	수, 금		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5754	화, 목		소아외과 질환(기형, 종양, 탈장, 배변기능장애)		
	왕희정	5753	금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서광욱	5753	월(재진)	월(초진),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오찬권	5756	월, 금	월, 금	장기이식외과, 혈관외과		
	김옥환	5756	화, 목, 토		간·담도·췌장 질환		
	한상욱	5754	금	월, 금	위·십이지장 질환, 복강경위수술		
	정용식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이국종	5753	목		외상외과		
	윤태일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	
외과	김홍		토	목	위십이지장 질환, 급성복통		
	정인호		수, 토		담도계 질환, 복강경 수술	★	
	김봉원			화, 토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급성복통	★	
	안상익			수	두경부 질환, 유방질환	★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입상시간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홍부 외과	이철주	5749	금	화	성인심장혈관외과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혈관외과	
	최 호	5750	화	화, 목	폐·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강준규	5750	목	금	심장혈관외과	
5717	이성수			월, 수	폐·식도외과	
	알빈진료	5750	토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정형외 과	강신영	5544		월*, 목	수부 및 상지외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건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목, 금		척추외과,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 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전영수		월, 금, 토		골연부조직 종양 및 외상학	
	조재호		토	수, 금	소아정형(변형교정, 키늘리는 수술), 외상	
	알빈진료	5542	화, 수, 목, 토	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신경외 과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수, 목	월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한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신용삼		5663	해외연수중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김세혁		수	수, 금	수, 금	뇌종양, 뇌혈관 질환, 외상	
심숙영		월, 토			뇌종양, 외상, 일반신경외과	
허지순	5663		월, 수	척추질환, 외상		
성형외 과	박명철	5611	월,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화, 목	금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악안면부기형	
	박동하			월, 수,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황인석	토	화		미용성형	
알빈진료	월-토	월-금				
산부 인 과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형수	5593	해외연수중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홍	5594	월, 수	화, 금	부인암, 복강경	
	양정인	5593	월, 수, 목	월, 수, 목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금	불임, 습관성 유산, 복강경	
	이정필	5595	월, 토	수, 목	부인암, 비뇨부인과, 복강경	
	김미란	5643	화, 목, 토	화, 목	불임, 복강경, 미혼여성클리닉	
알빈진료	월-토	월, 수, 목, 금				
안과	유호민	5669	월, 수, 금	월(예약), 수(예약)	망막, 초자체, 백내장	
	안재홍	5672	월, 화	금	각막, 녹내장, 백내장, 굴절수술	
	문상호	5670	금	화, 목	안성형, 백내장, 렌즈클리닉	
	장윤희	5672	목	월, 목	사시, 소아안과	
	양홍석	토	화		각막, 백내장, 외안부	
	문찬식	수, 토			망막, 초자체, 백내장	
	알빈진료	5671	월-금			
이 비 인 후 과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균	5742	화(신경과)	월, 목	중이염, 난청(유전성난청), 인공와우, 보청기	
	정연훈	5742	목(이비)	화, 금	난청, 어지럼증, 인공와우, 귀종양	
	김철호	5746	월, 목	수(이비)	두경부 종양, 음성장애, 기관·식도 질환	
	김현준	5746	수, 토	화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오정훈			월, 수, 금	비염, 부비동염	★
5747	김병철	화, 금			비염, 부비동염	★
	이준호	수, 토	목		난청, 중이질환	★
	알빈진료	월-토	월-금			

진료과명 입상시간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비뇨 기과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종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중보	5587	화, 금	수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오동근	수, 토	월		남성과학, 요로결석, 요실금		
	강지훈	월	화, 금		비뇨기 종양(암)		
알빈진료	목, 금, 토	수, 목					
재 활 의 학 과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추손상		
	나은우	5796	화, 수, 목	목,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임신영	6440	토	월, 화, 수, 금	소아재활, 학습장애, 언어발달장애		
	윤승현	월, 목, 금	화, 수		노인재활, 근골격계 재활		
알빈진료	화	목					
지 방 사 신 과	김선용	5854	월, 화, 목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		
	원재현	5863	해외연수중		혈액순환장애, 폐혈관질환, 폐색전증		
	알빈진료	5145	수, 금, 토	화, 목			
방사선 종양 학과	전민선	5884	월-토	월-금	종 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오영택	5884	월-토	월-금	종 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5884	강승희	5884	월-토	월-금	종 양(뇌종양, 육종, 정위방사선치료)	
	핵 의 학 과	윤석남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윤준기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신원외과 5644 5606	이경종	5645		화	직업성 질환		
	박재범	5644		목	직업성 질환, 직업성인간공학		
	알빈진료	5644	토	월-금	직업성 질환		
가 정 의 학 과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폐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새별	5957	화, 금	월, 수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김범택	월, 수, 목	금		비만, 골다공증		
	안병훈	화	목		비만, 갱년기, 골다공증	★	
	정재훈	목	월		갱년기, 골다공증	★	
알빈진료	4808	월-토	월-금				
치 과	항병남	5869	화*, 목*, 금	월, 화, 목*	인공치아이식, 턱관절장애		
	이정근	5869	월, 화*, 수, 목*	화*, 수*, 목	악안면기형, 악안면외상, 인공치아이식		
	고석민	5869	월*, 화, 금*	월*, 수, 금	인공치아보철, 틀니		
	알빈진료	월* ~ 토*	월*, 화, 수*, 목, 금*		화, 목 오후는 초진 가능	★	

진료과명 입상시간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전	오후	야간	세부진공	비고
응 급 의 학 과	조준필	6005	월, 수		수	외상외과, 응급질환	★
	정은석	6005	화	월, 목	화	독극물중독, 응급질환	★
	이국종	6005	금	수	금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
	민영기	6005	목, 토	화, 금	월	응급의학, 중환자학	★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진공만 진료합니다.
4. ■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 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